

**The Gospel of Mark**

Sermon 73 – Sermon notes

Title: “Our King dies”

Scripture: Mark 15:33-41

Date preached: March 10th 2024

**Scripture: Mark 15:33-41**

**33 At noon,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ree in the afternoon. 34 And at three in the afternoon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e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35 When some of those standing near heard this, they said, “Listen, he’s calling Elijah.” 36 Someone ran, filled a sponge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aff,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take him down,” he said.**

**37 With a loud cry, Jesus breathed his last.**

**38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39 And when the centurion, who stood there in front of Jesus, saw how he died, he said,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40 Some women were watching from a distance.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the younger and of Joseph, and Salome. 41 In Galilee these women had followed him and cared for his needs. Many other women who had come up with him to Jerusalem were also there.**

33 낮 12 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무려 3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4 오후 3 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35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잖아!” 하고 말하였다. 36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싯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 주나 보자” 하였다.

37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38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39 그러자 지켜 섰던 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40 그리고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take a few moments to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It's the Friday of Passion week, the day we know today as “Good Friday.” Jesus had appeared in six trials, he had been mocked, abused and brutally scourged. Now He must face the ultimate horror. His crucifixion.

As I mentioned last time it was usual for the condemned prisoner to carry the horizontal portion of the cross (the *patibulum*) to the execution site. Due to the brutal flogging Jesus had received He was unable to do this. Therefore a passer-by was compelled (forced) by the Roman execution squad to carry the cross-beam. This unfortunate man was called Simon and Mark tells us he was from

Cyrene in northern Africa. He also interestingly adds that he was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The unusual inclusion of this detail strongly suggests that these men were known to at least some of Mark's original audience. We are speculating of course but perhaps their father's experiences led him to follow Christ, and he in turn shared his faith with his sons.

The site used for execution was known as Golgotha meaning the place of the skull. It was most probably located just outside one of the city gates and alongside a major road leading into the city. There was no accident in this choice of location. The Romans picked prominent spots so that the true impact of their punishment system would be observed by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They wanted people to be shocked and awed by their brutality. Once Jesus, Simon and the execution team arrived at Golgotha it was time to crucify Jesus.

Mark tells us that Jesus was offered some wine laced or mixed with myrrh to drink. This was intended to help dull the pain a little. It acted like a mild anaesthetic. The Lord Jesus refused to drink it. He did not want any medication or wine to cloud His senses or numb His pain. He would boldly face the agonising pain unaided. It's a good reminder to us that when we face pain either physical or emotional we have a saviour who knows exactly what we are going through. Following this incident it was time for the crucifixion to begin. The hour Mark tells us was the third hour or 9am.

Last time I laid out in some detail how this process took place. Jesus was stretched out and nails were driven through His wrists into the wood of the crossbeam. Then using forked sticks He would have been lifted up and the cross beam attached to the vertical stake (*stipes*). At this point bending His knees slightly His feet would have also been nailed to the cross. Jesus was now being crucified.

The victim of crucifixion would remain in this position until they died. It was often a long drawn out process. The victim must endure the horrendous pain of the nail wounds all the while trying to draw in breath. This was the wicked genius of the cross. You could not simply hang there in agony. In order to breathe you had to lift yourself up and down. Every time you did so you put pressure upon the nails driven through your skin. Every time you moved up and down the ragged flesh on your back scraped against the rough wood of the cross.

Mark also includes some other important details that we should not overlook. He tells us that whilst Jesus was being crucified the soldiers gambled for His clothes. This was the fulfilment of Old Testament prophecy (Psalm 22:18). We also learn that a wooden plaque or sign known as the *titulus* was prepared for Jesus. There was nothing special in this. It was common for a condemned prisoner to be accompanied to the execution site with a sign telling people what they had done. This would then be attached to the cross.

Jesus' sign written in three languages (Aramaic, Latin and Greek) declared that this was "The king of the Jews." It was intended of course as mockery. This was no king, this was just a dirty common "criminal." It was also a subtle reminder to the Jews that this is what would become of anyone they tried to raise up and use to oppose Rome. What was intended as a joke we know to be the truth.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We also learned that Jesus was crucified between two convicted robbers. Most likely they had been co-insurrectionists with the pardoned Barabbas. That He was killed alongside transgressors again fulfilled Old Testament prophecy (Isaiah 53:12).

We concluded last time by looking at the responses of three sets of people who were observing Christ's death. First we had the common people. They wagged their heads and blasphemed Jesus. They questioned why He who had claimed to have great power and authority could not use that power to come down from the cross. Secondly we saw the reaction of the Jewish religious leader. They mocked him like silly school children. Why, they asked could this person who had saved so many others not save Himself. Finally we saw the reaction of the two robbers who were crucified alongside Jesus. They too began by mocking Jesus. But Luke in his account (Luke 23) tells us that

one of the robbers felt convicted. He recognised that they were guilty men, they deserved the punishment they were receiving. But Jesus was different. He had done nothing wrong. Turning to Jesus he said,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We are all familiar with Jesus answer, our Lord told him, “Assured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It was true for that guilty robber back then and it remains true today. If we acknowledge our sin and turn to Christ then we too are invited into His Kingdom.

Today we will consider Jesus death.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Good Friday'로 알고 있는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여섯 번에 걸쳐 재판을 받으셨고, 조롱과 학대와 잔혹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궁극적인 공포에 맞섭니다. 그분의 십자가형.

사형수는 십자가의 수평 부분(경대)을 들고 처형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잔혹한 채찍질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인은 로마 처형대에 의해 대들보를 운반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불렸고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마가는 그가 알렉산더와 루퍼스의 아버지라고 흥미롭게 덧붙였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이 사람들이 마가의 원래 청중 중 적어도 일부에게 알려졌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우리는 추측하고 있지만 아마도 시몬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고, 결국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믿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처형 장소는 해골터라는 뜻의 골고다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도시 성문 중 하나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주요 도로 옆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이 위치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처벌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잔인함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과 처형팀이 골고다에 도착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누군가 예수께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가벼운 마취제처럼 작용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약이나 포도주가 자신의 감각을 흐리게 하거나 고통을 마비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을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담대히 맞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이후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때가 제 삼 시, 즉 오전 9 시였다고 말합니다.

지난 번에 저는 이 처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쪽 펼치고 못을 손목에 통과시켜 수평 가로대의 나무에 박습니다. 그런 다음 갈래진 막대기를 사용하여 가로대를 들어올려 수직 기둥에 고정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분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셨고 그분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자는 죽을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숨을 쉬는 내내 못 박힌 상처로 인한 지독한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극단적인 사악함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고통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몸에 박힌 못에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몸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다 등의 갈가리 찢긴 살이 십자가의 거친 나무에 굵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동안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놓고 도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시 22:18). 또한 티툴루스(titulus)라고 알려진 나무 죄패가 예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형수들이 한 짓을 알리는 표지판이 함께 처형장에 동행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죄패는 십자가에 함께 부착됩니다.

세 가지 언어(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예수의 죄패는 그가 “유대인의 왕”임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조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자는 왕이 아니다! 그저 더러운 평범한 “범죄자”일 뿐이다! 그것은 또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려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면 누구나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으로 의도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강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면받은 바라바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범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신 것 또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이사야 53:12).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고 있던 세 그룹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끝 마쳤습니다. 먼저 일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큰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왜 그 능력을 사용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둘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처럼 조롱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한 자가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두 강도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누가복음 23 장)에서 강도 중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죄인이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고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그 강도의 경우에도 사실이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분의 왕국으로 초대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 **33 At noon,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ree in the afternoon.**

Mark in his account of Jesus' death includes five dramatic events; The darkness, two of Jesus' cries from the cross, the tearing of the temple veil or curtain and the Roman centurion's confession. All of these events took place during the final three hours that Jesus spent on the cross (12 noon to 3pm). We will look at all five of these today.

### **33 낮 12 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무려 3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예수의 죽음에 관한 마가의 기록에는 다섯 가지 극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두 가지, 성전의 휘장이 찢김,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고백.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내신 마지막 세 시간(낮 12 시부터 오후 3 시) 동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The first notable event is the darkness that descends over the whole land. Have you ever witnessed a solar eclipse? It creates a very eerie sensation in the viewer as the moon comes between us on earth and the sun's rays. What a moment ago was a sunny day slowly fades into darkness.

I'm sure you are aware that solar eclipses are not very regular occurrences. In most Calendar years there are usually only two, though on very rare occasions (25 over the past 5000 years according to NASA!) there can be five. When do solar eclipses occur? This is very important so please take note. They can only occur at the time of a new moon. At the first phase of the lunar cycle the moon is located between the Earth and the Sun. Or to put it more simply, the Moon is in line with the Sun, and the Sun and Earth are on opposite sides of the Moon. So it is only at this time when the Moon is perfectly aligned in front of the Sun that it blocks out the Sun, giving us a solar eclipse.

Why is this important? Well the Jewish Passover took place when the moon was full. A time in the lunar cycle when it is impossible for there to be a solar eclipse. So this was not a regular or normal solar eclipse. Neither was it a dust storm, a heavy fog, ash from a volcano or thick clouds. This was a supernatural event a miracle, it was God intervening in the natural order or running of the universe.

What's going on here?

Why did God cause a darkness to fall across the land from 12 noon until 3pm when the Lord Jesus died? What message was God sending to the people through this strange occurrence? There is a great deal of important symbolism lying behind this event so let's unpack it now.

Let's go back to the time just prior to the Israelites exodus from Egypt. God as we know inflicted the Egyptians with ten plagues. He did this to convince the Pharaoh to let His people go. What was the ninth plague? It was darkness and you can read all about it in Exodus chapter 10 verses 21 to 29. The bible tells us that a thick and terrible darkness fell across the land for three days. Note that this only fell upon the Egyptians, the Israelites had light in their dwellings. Following the plague of darkness came the final and most horrific of the plagues. The tenth plague was the death of the firstborn. This was of course when the very first passover occurred. This was the feast that the Jews were gathered in Jerusalem to celebrate when Christ was crucified.

So, I hope you see the connection. In Egypt, three days of darkness occurred before the death of the firstborn. Here three hours of darkness preceded the death of the firstborn Son. In Egypt it was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that served as a covering. The lambs blood protected God's people from death. Here it is the shed blood of the lamb, the Lord Jesus Christ which allows God to passover those who deserve death.

We should also not overlook the symbolism of darkness as a judgement motif. Throughout scripture the darkening of the sun was often used as a sign of judgment. It was used to show God's displeasure toward particular people. Let me read to you from the prophet Amos.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says the Lord God,  
“That I will make the sun go down at noon,  
And I will darken the earth in broad daylight;  
(Amos 8:9)**

Here God speaks through His prophet of a day of judgment when the "songs of the temple shall become wailings."

So God in this sign demonstrated two things. Firstly He announced that His Firstborn and Beloved Son, the Lamb of God, was giving His life for the sins of the world. Secondly He showed that judgment was coming and men had better be prepared.

A final word on the extent of the darkness. Was this darkness restricted to Jerusalem, or only Israel or was it a global darkness? Solar eclipses as you know are regional in nature. The whole earth does not become dark during an eclipse. However as we have established this was not a natural phenomenon. This was not a normal solar eclipse. So how widespread was this darkness? We don't of course have documents or reports from around the world. We do however have one secular source in the Roman historian Phlegon (born around 80 AD). He records that there was a full eclipse of the sun from the sixth to the ninth hour in 33 AD during the reign of Tiberius. He records that this was a world-wide (from his perspective) event.

Let us move on and look at the second dramatic event; Jesus crying out.

첫 번째 주목할만한 사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일식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끼어들 때 보는 사람에게 매우 으스스한 느낌을 줍니다. 화창했던 날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일식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매 년 대략 두 번 정도 일어나지만, 매우 드문 경우(NASA 에 따르면 지난 5000 년 동안 25 개!) 다섯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식은 언제 발생합니까? 이는 매우 중요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승달 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 주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달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달은 태양과 일직선상에 있고 태양과 지구는 서로 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 앞에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이 때에만 태양을 차단하여 일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였습니다. 달의 주기 상 일식이 생길 수 없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상적인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폭풍도, 짙은 안개도, 화산재도, 두꺼운 구름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자 기적이었고, 자연의 질서나 우주의 운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을 내리셨을까요? 이 기괴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을까요? 이 사건 뒤에는 많은 중요한 상징이 숨어 있으므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파라오가 자신의 백성을 보내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어둠이었고 출애굽기 10장:21-29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삼 일 동안 짙고 무서운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일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음에 주목하십시오. 어둠의 재앙에 이어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최초의 유월절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유월절 날에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연관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는 장자가 죽기 전에 사흘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기 전에 세 시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죄를 덮은 역할을 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서 보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자들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심판 모티브로서의 어둠의 상징성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종종 심판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쾌하

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일이 이를 것이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 8:9)**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성전의 노래가 통곡이 될”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적에서 두 가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둠의 정도에 대해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이 어둠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을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어둠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일식은 본질적으로 지역적입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의 어둠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얼마나 널리 퍼졌을까요? 물론 우리는 전 세계의 문서나 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역사가 플레곤(서기 80 년경 출생)이 쓴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인 서기 33 년 6 시부터 9 시까지 완전 일식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관점에서) 세계적인 사건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극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살펴보겠습니다.

**34 And at three in the afternoon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e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As his death approaches,**

It is now 3pm. The Lord Jesus has been hanging in agony for 6 hours. This seems like an interminably long period of time but this was, by the normal standards of crucifixion a short time. It was not unusual for victims to survive for up to 48 hours before succumbing to death. Imagine that, hanging from nails driven through your flesh for two whole days!

Jesus at this time cries out in a loud voice,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He is not crying out at the unbearable physical pain He was enduring. He was of course in great physical pain. His cry is a plea of agony that derives deep from within His soul. It's not the pain of death that troubles Him it's the pain of the separation from the Father.

For all of eternity He had enjoyed the presence and companionship of the Father but now, for the first and only time He is suffering alone. This is because Jesus has become sin for us. He has taken our place, He acts as our substitute bearing our sin. So He suffers here the judgment for sin that we deserve. A perfectly Holy God can have no part of sin and therefore must separate Himself from it.

Mark records Jesus words in Aramaic (Eloi), Matthew in Hebrew (Eli). Which writer is correct? Which language did the Lord Jesus use? We cannot be certain, and in truth it does not matter. I am more inclined to think He used Aramaic. My reasoning being that Mark is interested in capturing Jesus cry from the heart. In times of anguish and distress we express our feelings in the language in which we are most comfortable and fluent. In Jesus case this was Aramaic. Matthew by contrast is more concerned with emphasizing Jesus' quotation of Psalm 22:1.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y are You so far from helping Me,**  
**And from the words of My groaning?**

Thankfully because of what Christ did for us on the cross we will never have to experience separation from God. There will never be a time when we suffer alone. Those whom He has chosen and elected for salvation are indwelt by the Holy Spirit. God is always with us. Let us read on and see how those nearby interpreted and reacted to Jesus' words.

**34 오후 3 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오후 3 시입니다. 주 예수님은 6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십자가형의 기준으로 보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최대 48 시간 동안 살아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동안 몸에 박힌 못에 매달려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십니다. 그분은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에 대해 울부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분의 부르짖음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고뇌의 탄원입니다. 그분을 괴롭히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아버지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 오셨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고통을 홀로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십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속하지 않으시므로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람어(엘로이)로, 마태는 히브리어(엘리)로 기록합니다. 누가 맞나요? 주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나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추론은 마가가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것을 포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유창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것이 아람어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태는 예수께서 인용하신 시편 22:1 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고통받는 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르시고 구원하려고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 읽어보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5 When some of those standing near heard this, they said, “Listen, he’s calling Elijah.”**

**36 Someone ran, filled a sponge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aff,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take him down,” he said.**

Those standing nearby hear, or more accurately mishear Jesus words. In Aramaic *Eloi* or Hebrew *Eli* sound very similar to the name Elijah *Elia*. So the people think that He is calling out to the prophet Elijah. Elijah as I'm sure you all remember was taken up to heaven in a whirlwind (2 Kings 2:1-12). He is one of only two men in scripture who went to heaven without dying. Why would someone call out for Elijah? Well Jewish tradition said that Elijah was present at the Passover meal.



There was also the belief that Elijah was a messianic type figure who would return to rescue the righteous when needed. In Malachi chapter 4 verse 5 we read the following,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So the bystanders believe that Jesus is calling for Elijah to come and rescue him.

As we have repeatedly seen throughout Mark's gospel it was not uncommon for the people to misunderstand Jesus words.

Those watching recognise that Jesus is in acute discomfort. In particular they note that He is thirsty.

Doctors who have studied the crucifixion suggest that His thirst is one of the many indications He is suffering from *hypovolemic shock*, or blood loss. This condition manifests when the human body has lost more than twenty percent of its blood. At this point the kidneys stop functioning in order to preserve what body fluid is left. The patient in such a state is typically left with extreme thirst.

Therefore the people offer Him a drink to try and alleviate at least some of His anguish. Sour wine vinegar is mentioned in the OT as being a refreshing drink (Numbers 6:3; Ruth 2:14). We also know that it was a popular beverage appreciated by the common people because it relieved thirst more effectively than water and was less expensive. It was a mix of water and eggs, with a splash of wine vinegar to keep it from spoiling. Someone, either a Roman soldier, or one of the bystanders soaks a sponge and attaching it to staff offers it to Jesus.

Then they decide to leave Him alone. We don't know how whether the man saying, "Let's see if Elijah comes to take Him down" is said genuinely or as a further act of mockery. In the context it seems most likely that he is mocking Him. Let us read on.

35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잖아!” 하고 말하였다. 36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싼 포도주에 적서 갈대에 꿰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 주나 보자” 하였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잘못 듣습니다. 아람어 Eloi 또는 히브리어 Eli 는 Elijah *Elia* 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왕하 2:1-12). 그는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단 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를 부르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엘리야는 유월절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엘리야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인을 구하기 위해 돌아올 메시아적 인물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말라기 4 장 5 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구경꾼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구하라고 엘리야를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마가 복음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고통을 겪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목이 마르심을 압니다.

십자가형을 연구한 의사들은 그분의 목마름이 저혈량성 쇼크나 출혈로 고통받고 있다는 많은 징후 중 하나라고 제안합니다. 이 상태는 인체가 혈액의 20% 이상을 잃었을 때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신장은 남은 체액을 보존하기 위해 기능을 멈춥니다. 이러한 상태의

환자는 일반적으로 극도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음료를 줍니다. 신 포도주 식초는 구약에서 상쾌한 음료로 언급됩니다(민 6:3; 룻 2:14). 또한 물보다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여 서민들 사이에서 즐겨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물과 계란을 섞은 것이었고, 상하지 않도록 와인 식초를 살짝 뿌린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구경꾼 중 누군가가 스펀지를 적셔서 막대기에 붙여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분을 내버려두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는 지 보자”라는 말을 한 자가 진심으로 말했는 지 아니면 조롱하려고 한 말인 지 우리는 모릅니다. 문맥으로 볼 때 그는 그분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 **37 With a loud cry, Jesus breathed his last.**

Mark records Jesus speaking or crying out just twice whilst He hangs upon the cross. The first is a cry of agony at being abandoned by God. The second is a cry of triumph or perhaps relief at fulfilling his divine purpose. The cry Mark is referring to may be just a wordless, guttural expression. John in his gospel records Jesus saying: "**It is finished,**" (John 19:30). Luke records Jesus saying,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Luke 23:46).

With this cry Jesus died. Over the centuries there have been many hypotheses about the actual cause of Jesus's death. Was it a broken heart, asphyxia, circulatory failure, rupture of the heart lining or shock due to excessive blood loss. Whatever the cause it is clear that Jesus did not die the ordinary death of a crucified man. The two robbers alongside him did not die as He had. Their legs had to be broken in order to bring about their demise. For the gospel writers there is clearly something special about Jesus's death. He deliberately released His spirit meaning that His death was a supernatural event.

Let us turn now and consider the next dramatic event. It occurred in the Jewish temple.

### **37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마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동안 말씀하시거나 외치신 두 가지 경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의 부르짖음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외침이거나 그분의 신성한 목적이 성취된 데 대한 안도감일 것입니다. 마가가 여기서 언급한 외침은 말이 없이 목이 막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46)

이 부르짖음과 함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예수님 죽음의 실제 원인에 관한 많은 가설이 있었습니다. 상심, 질식, 순환 장애, 심장 내막 파열, 과도한 혈액 손실로 인한 쇼크 등등. 원인이 무엇이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옆에 있던 두 강도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게 하려면 다리를 부러뜨려야 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을 내려놓으셨는데, 이는 그분의 죽음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의 극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38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In order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is dramatic event I need to lay out the set up of the Jewish temple. The temple consisted of a series of rooms or spaces, each more exclusive than the last. The outer space was the court of the Gentiles. This space could be accessed by all, both Jew and Gentile.

We then enter the temple proper. This space was designated for Jews only. Gentiles were excluded.

The first space one entered in the temple proper was the court of women. Again Jews of either sex could freely access this space. From here we move into the court of the men of Israel. As its name suggests this space was open only to Jewish men. Women were excluded. Next we move into the court of the priests. This area was accessible only to the Levitical priesthood. Jewish men who were not priests were excluded. Standing at the very heart of the temple complex was the Holy of Holies. This area was divided off, or separated from the rest of the temple by a thick curtain or veil.

The historian Josephus records that this curtain was eighty feet high, thirty feet wide and four inches thick. So we are talking about a massive curtain which required 300 priests to manipulate it.

The curtain separated or divided off the most sacred part of the temple. Only one man, the high priest was permitted to enter the Holy of Holies.

He was only allowed to access it on one day of the year (the Day of Atonement). It is this curtain that was torn from top to bottom when the Lord Jesus died. So the key thing I want you to think about is as follows. Who had “access” to God in the temple system? The answer is only very special people and only at very special times.

So what's going on? What does this torn curtain mean? Remember what I just told you about the dimensions of this curtain. No human being would be able to tear it in two. This then was a supernatural act performed by God. All the synoptic writers record this dramatic act but none of them take the time to explain it. Fortunately for us the writer of Hebrews tells us what it means (Heb. 6:19-20; 9:1-14; 10:19-22). He explains at great length that the curtain being torn signifies the opening up of the Holy of Holies. It means that God's presence is no longer an exclusive space limited to only a few and only at certain times. The curtain being torn indicates that the old way, the way represented by the temple and the sacrificial system was now finished. Now because of Christ's completed work we have a new and permanent way in which to access God. What a wonderful thing that is.

Let us now turn and look at the fifth and final dramatic event.

### 38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이 극적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유대 성전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일련의 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방은 이전 방보다 더 배타적이었습니다. 바깥 공간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공간은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이라면 성별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위한 뜰로 이동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은 유대인 남성들에게만 개방되었습니다. 여성은 못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이 제사장들의 뜰입니다. 이 곳은 레위 제사장들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유대인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단지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휘장으로 성전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휘장이 높이가 80 피트, 너비가 30 피트, 두께가 4 인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휘장은 아주 거대해서 그것을 다루는 데 300 명의 사제가 필요했습니다.

휘장은 성전의 가장 신성한 부분을 분리하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일년 중 단 하루(속죄일)만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제도 아래에서 누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시기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찢어진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휘장의 크기에

관해 제가 방금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인간도 그것을 둘로 찢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행위였습니다. 모든 공관복음 저자들은 이 극적인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의 의미를 알려줍니다(히 6:19-20; 9:1-14; 10:19-22).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소수,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된 배타적인 공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옛 방식, 즉 성전과 제사 제도로 대표되는 방식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영구적인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극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39 And when the centurion, who stood there in front of Jesus, saw how he died, he said,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Roman crucifixion was carried out by specialist execution teams. These teams were made up of five men. Four foot soldiers led by a centurion. The centurion was the man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whole event. It is this man who has witnessed all that has transpired who says,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Matthew adds that the centurion was influenced by a sudden earthquake (Matthew 27:54) while Luke says the centurion **glorified God, saying, “Certainly this was a righteous Man!”** (Luke 23:47).

What was it that so impressed this hard bitten Roman soldier? A man who had probably supervised many similar executions. Obviously he had been witness to the sudden strange darkness. Did this impress him? It's unlikely that he would have ascribed it Jesus. Did he know about the temple curtain tearing? That seems unlikely and again its highly doubtful that he would have noted the symbolic significance. So it must have been something he witnessed in the Lord Jesus. Was it Jesus unnatural self control under excruciating pain? Did Jesus exude a sense of power, control or authority that impacted this man. Was he simply and yet profoundly touch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gospel writers do not tell us.

What we might ask did he mean when he described Jesus as the “Son of God.” Scholars have long debated what he might have meant. Did he mean that Jesus is accepting His fate as a loyal servant of the deity He serves? Rather like if you visit a government building and the staff are polite and helpful it reflects well on the government. You might say well, “That worker is a great servant of the state.”

Or possibly he really does think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the Jewish God. In Roman culture, the emperor was considered to be a “son of the gods.” So the centurion may be saying Jesus is clearly by His actions (dying honourably) that He was demonstrating that He is the son of a god. Maybe as a polytheistic Roman, he really believed that Jesus was the literal son of one of the many gods. Or maybe its something altogether different.

Perhaps as He looked up at our Lord and Saviour he truly saw Jesus for who He was. Have you ever had the experience in life when you look at something and see it in a fresh and new way. As an experiment I recommend on a nice spring day going out and looking really closely at a flower or plant. You could use a magnifying app on your phone.

You may have glanced at similar plants or flowers a thousand times before but on this occasion really study it closely. Open your eyes and also your mind to seeing something special. I guarantee that you will be astounded and the intricacy and beauty of God's amazing design. So maybe this centurion looked up at Jesus and saw past the blood and grime. He looked up and realised he was looking at the Son of God.

Let us conclude by looking at another group who looked upon the Lord Jesus on the cross.

**39** 그러자 지켜 섰던 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전문 처형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팀은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끄는 네 명의 보병. 백부장은 모든 행사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갑작스런 지진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이고(마태복음 27:54), 누가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의로운 사람으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누가복음 23:47).

이 굳건하게 단련된 로마 군인에게 그토록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는 아마도 비슷한 처형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갑작스런 이상한 어둠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까요? 그가 그것을 예수님 탓으로 돌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알았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으며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 예수 안에서 목격한 무언가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자제력을 보이신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킨 어떤 능력, 통제 또는 권위를 발산하셨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학자들은 그가 무엇을 의미했을 지 오랫동안 토론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말했을까요? 마치 정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직원이 정중하고 도움이 되면 정부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공무원은 국가의 훌륭한 봉사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는 정말로 예수가 유대신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신의 행동(명예롭게 죽으심)을 통해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으로서 예수가 문자 그대로 많은 신들 중 하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험 삼아 날씨 좋은 봄날에 밖에 나가서 꽃이나 식물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휴대폰의 돋보기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식물이나 꽃을 이전에 수천 번 봤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살펴보세요. 특별한 것을 보기 위해 눈과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디자인으로 창조하신 복잡함과 아름다움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피투성이 그 너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또 다른 그룹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0 Some women were watching from a distance.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the younger and of Joseph, and Salome. 41 In Galilee these women had followed him and cared for his needs. Many other women who had come up with him to Jerusalem were also there.**

Mark tells us that Jesus did not die alone among strangers and enemies. There were a group of His female followers who watched and witnessed what occurred from a safe distance. Among this group we are told were Mary Magdalene. She had loyally followed Jesus for years, ever since Jesus cast

seven demons from her (Luke 8:2). Also present is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Joseph, she is also identified as the wife of Clopas (John 19:25; Luke 6:15). The other named woman is Salome of whom we know nothing. Mark tells us that these women, along with an unspecified additional number who had been loyal followers in Galilee and had come along with Him to Jerusalem.

Mary, Jesus mother and the disciple John had been present at the crucifixion, but they are not mentioned here. As you may remember Jesus gave John the task of caring for His mother (John 19:25-27). So perhaps by this point John has taken her away.

These verses serve as a useful reminder to us of how radical and revolutionary Jesus was. He arrived in a culture in which women were considered inferior to men. A culture in which men ruled and women were not considered worthy of an education or a prominent role in society. This was not Jesus's view. He showed his peers how He viewed women to be equal to men and worthy of honor, respect, and freedom. He welcomed them as His followers, taught them and interacted with them. This does not mean that He made them apostles or pastors but we should never overlook the important role they played in His ministry.

Here they demonstrate their bravery and loyalty. The disciples have fled. Jesus is surrounded by a mocking baying mob but standing there unmoved and undaunted are these brave and loving female followers.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turn our attention to Jesus' burial.

**40** 그리고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마가는 예수께서 낫신 사람들과 적들 가운데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목격한 그분의 여성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로 수년 동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누가복음 8:2). 또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석했는데, 그녀는 글로바의 아내로도 밝혀졌습니다(요한복음 19:25; 누가복음 6:15). 또 다른 여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살로메입니다. 마가는 이 여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다수 있었음을 알려 줍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제자 요한은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는 임무를 주셨습니다(요한복음 19:25-27). 그래서 아마도 이 시점에서 요한이 그녀를 데려갔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남성이 통치하고 여성은 교육 받을 가치가 없거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명예와 존경,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인들을 당신의 추종자로 받아들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교류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나 목사로 삼으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은 그분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용기와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조롱하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이 용감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성 추종자들은 꼼짝 않고 함께 서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살펴보겠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A new way to God**

One of the changes I noticed on my recent trip to the UK was that a new chain of gyms had opened up. Almost every town I visited had a branch of this gym. It's unique selling point was that once you paid a monthly membership fee this allowed you 24 hour access 7 days a week to any gym in the chain. Whenever you fancied lifting some weights or using the running machine you could go. A nice idea. But I began to wonder how many people bought membership and then just visited occasionally or not at all.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having membership in a gym and actually using the gym. It certainly seems to be the case that many people will buy something like gym membership with good intentions by end up not using it.

As I discussed during the sermon Jesus's death opened up a new way to access God. The symbolic tearing of the temple curtain brought to an end the old system. A system in which the Holy of Holies was separated from people. Christ's atoning sacrifice for sinners opened up a new and constant way for us to enter into the presence of our awesome holy God.

Jesus' sacrifice makes it possible for us to come to God the Father whenever we desire. Our sins no longer separate us from Him. Today, anyone who puts their trust in Jesus Christ has constant access to God. Second Corinthians 5:21 explains that,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So how should we live in light of this wonderful news? Obviously with great gratitude and joy. But I wonder if we sometimes think of entering into God's presence rather like gym membership. Something that's nice to know, nice to have, but not something we often use.

This is a great shame. Especially when we think about what buying our "membership" cost the Lord Jesus. So let me encourage you to make entering into God's presence a daily activity. Make it a positive habit just like exercise. Devote time to prayer, bible reading, meditation or other forms of praise and worship. Let nothing distract, or hold you back from entering with great joy into the presence of our awesome God.

최근 영국 여행에서 제가 느낀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체육관 체인점들이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문한 거의 모든 도시에는 이 체육관 지점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판매 방식은 월 회비를 지불하면 체인 내 모든 체육관에 주 7일 24시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기를 들거나 런닝머신을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원권을 구매하고 가끔 방문하거나 아예 가지 않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헬스장 멤버십 같은 것을 구매했다가 결국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상징적으로 찢어진 것은 낡은 제도 즉 지성소가 사람과 분리된 체계에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우리가 경이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롭고 끊임없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원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 절은 이런

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명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체육관 회원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알아두면 좋고, 있으면 좋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큰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의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주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일의 활동으로 삼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운동처럼 긍정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기도, 성경 읽기, 묵상 또는 기타 형태의 찬양과 예배에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우리의 경이로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 **2 The importance of women**

The role and place of women within the church is a controversial subject today. It is an issue that has led to fierce debates and churches splitting. The issue for feminists rests in their belief that there should be no distinctions between what men and women can do. Therefore they argue women can be pastors or elders and have leadership roles within the church. As you are aware I do not hold this opinion. The bible I believe is quite clear that leadership roles within the church are reserved for men. But as I always say this is not because God sees women as inferior to men. It is simply the way God has designed the church to function.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women do not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Far from it. Women are vital to the church. Women were equally vital in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Lord Jesus. We see throughout the gospels that He showed a special love and respect towards women. He didn't treat them as being weak, inferior or lesser to men in any way. He knew that they loved and were devoted to Him, and He in turn loved them for it.

So, to the men listening to these words let us value and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women. Let us observe and be grateful for all they do in our lives and in the life of the church. And to the women listening thank you for your often unheralded service. Thank you for all you do and know that you are important and valued both by God and by the church.

오늘날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치열한 논쟁과 교회 분열을 불러일으킨 문제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성이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고 교회 내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성경은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남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능하도록 설계하신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성들은 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그분께서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존경심을 보이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남자보다 약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 때문에 그분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성분들은 여성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삶과 교회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듣고 있는 여성 여러분, 종종 알려지지 않은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 모두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